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박 상 호

2. 외고 설립 추진 이대로는 안된다!

5. 평양 봉수교회당 재건축 현장을 가다

6. 죽음의 병 이단을 경계하자

9. 여름을 겨냥한 다양한 신앙수련회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6년 7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92호

폿 대 를 향 하 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고(전3:11),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 안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에(롬1:18-21)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즉지 아니함을 구한다.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환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으로 일어나신 분이 되사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생기 넘치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어 어찌 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예비하셨기에 달려간다. 이 일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같이 달리되, 방향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이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함은, 다른 사람에게 선포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받는 일이 결코 없게 하려 함이로다."(고전9:26-27 사역)고 간증한다. 여기의 '쳐 (억제)' 는 금욕주의와 같이 몸을 학대하거나, 그노시스(영지)주의와 같이 몸을 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복종케 하여 우리의 거룩한 목적(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노예로 섬길 수 있도록 몸을 포로로 사로잡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규례에 맞게 사는 삶이다.

우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걷는 자들이 사라져, 본이 사라지고 이 길을 잃은 지 오래다. 이 소망의 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넘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의 부요하심이 아닌 광야를 경험하고, 빛 가운데 걷기 보단 하나님과 침묵을 경험하고, 마귀에게 네이쫓음 당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세상의 삶이 썩고, 더러우며, 쇠하는 것임을 이제 경험을 통해 알지 않았는가? 지금 돌아오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8:2-3)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서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순수함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자라가야 한다. 혼을 거슬러 전쟁하는 육신의 정욕들을 삼가며, 블경스럽고 허망한 우화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어야 한다.



여름의 문턱을 넘어섰다. 교회마다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등등을 통해 함께 이 길을 걷고자 권면하며, 위로하며, 세우는 비지땀을 흘릴 것이다. 교회마다 주님에게 돌아오며, 주님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구한다. 아나 테마 마라나타 (Anathema Maranatha)

[편집부 이영규]

이달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 각교회의 훈련프로그램을 위해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등 여름 행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춘천의 영적 기상도가 변화되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소서.

· 새로 당선된 시장과 시의원들을 위해

성시화의 본고장 부흥의 도시 춘천에 새로 선출된 시장과 시의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다스려 주심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할 비전을 품고 땀흘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소서. 또 정직한 심령으로 시민들을 섬기고 도시의 미래를 위해 바른 결정을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을 위해

강원도의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나갈 외고 설립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일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관과 일꾼이 바르게 쓰임 받고, 이를 통해 영어마을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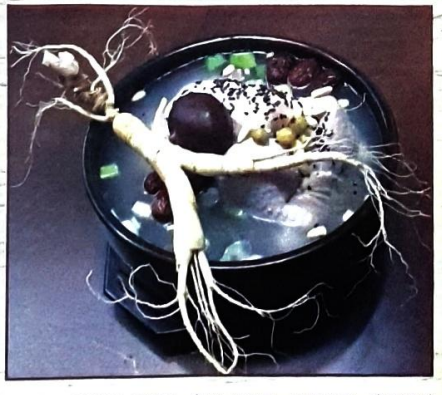
· 춘천시민 열린 포럼을 위해

명실공히 종교의 벽을 넘고 사상의 벽을 넘어 순수한 마음과 사랑으로 도시를 섬길 수 있는 정직한 시민들의 모임체가 이뤄지게 하소서. 매달 열리는 시민 아카데미에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 성시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중보기도운동과 인재양성을 위한 아카데미와 경영인들을 위한 아카데미가 활성화 되게 하소서. 특히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와 노인복지학교들이 왕성하게 성장하며 부흥의 기반이 되게 하소서.

장뇌삼과 각종 한약재를 첨가한! 웰빙 삼계탕!





※대형 주차시설 완비 ※각종모임을 위한 단체연회석 완비

웰빙 삼계탕

장삼원

귀한 분을 모신다면 장삼원으로 오십시오!

건강을 생각한 혼(魂)이 담긴 삼계탕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예약 문의

(033)254-9191 · 9199

H·P 011-9795-5570



♦메뉴 · 장뇌삼 삼계탕 · 한방 삼계탕 · 닭도리탕 · 한방백숙

춘천시 후평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소양댐 방향 500m지점

외국어 고등학교설립 추진 이대로는 안된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 특목고 중의 하나인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을 지난 2006년 4월 18일자로 공고하였다. 이 외국어 고등학교를 우선 사립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후 7월 28일까지 학교의 설립계획서들을 받아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설립을 통한 다양한 발전의 기회가

외국어 고등학교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시 이후에, 또 하나의 지역 개발을 위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다른 어떤 시도에서는 20만평의 땅을 내놓겠다면서 유치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고, 태백 정선 원주 등 다른 시 군들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학교의 설립에 많은 지자체가 강한 의욕을 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한 고등학교의 설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와 나라의 가장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게 될 특별한 학교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한국이 국제화 세계화로 발 돋음 하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외국어 교육을 위한 영어 및 외국어 체험마을의 설립을 이를 중요한 발판이 되며 이를 통해 외지인의 유입 등 다양한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지역개발에 막대한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 아래 중요한 안건으로 삼고 학교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춘천의 현실정은

이에 춘천시도 오래 전부터 이 외국어 고등학교의 유치를 위한 연구 및 검토를 하며 대처하는 등 다양한 방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복안이 드러나면서 춘천시의 의도를 살펴 보니 결론적으로는 영어 교육을 표교의 한 방안으로 정하고 있는 삼육재단 즉, 안식일 교단과 연계하여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춘천시 유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안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수의 위원들 중엔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 안식일 교단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외고의 설립문제가 진행 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춘천은 지금까지 많은 외면과 아픔을 겪으며 고통 중에 있는 상태이다. 근간의 혁신도시 문제와 함께 태권도 공원 선정문제, 강원도에서 세운 G5계획안, 미군부대의 이전 문제 등으로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며 시민의 좌절감 및 경제가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 목도하고 있다.

이제 남은 도시 개발을 위한 방안 중에 가장 큰 기대감이 교육에 대한 비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춘천의 현실 앞에 최선의 힘을 모아 함께 시민들과 시정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기도하려던 기독교연합회가 어떻게 자세를 잡고 있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하고 엉거주춤한 상태가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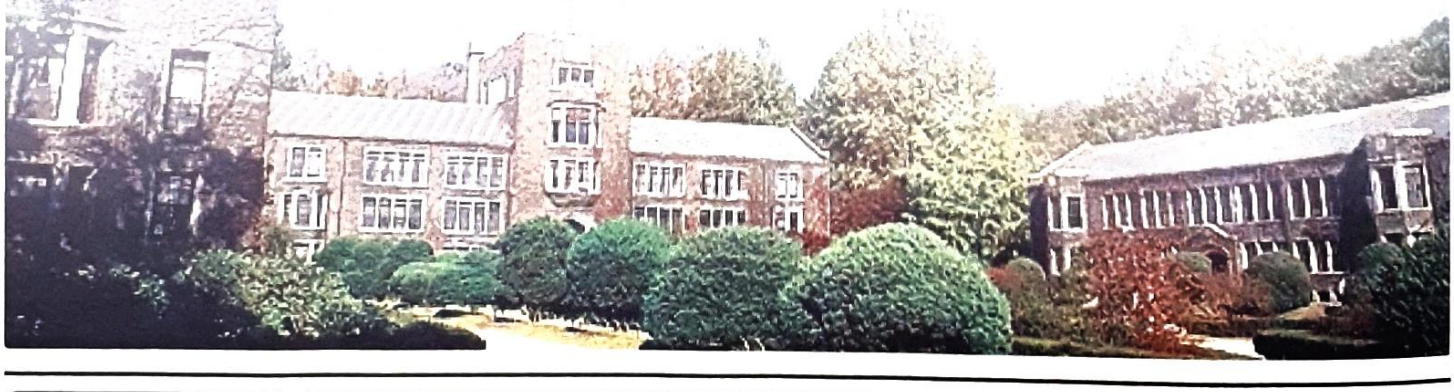
공정하고 바른 선택이 이루어지길

엄밀히 말하면 아직 안식일 교단은 정통 기독교와 전혀 교류가 없는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다. 물론 좋은 인상과 영어교육에 대한 헌신 등으로 사회인들에게 다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단이라 말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의 차이점이나 성경진리에 대한 오류만이 아닌 사회 속의 부적응 등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를 이단으로 분류하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직 안식일 교단은 그들 스스로의 아집을 버리지 않은 완고한 곳이다. 이런 특정교단에게 한국과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재들을 맡긴다는 것에 깊은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약 2년 전부터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려면 안식일 교회에 나와 등록을 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운영할 것이다" 등등의 말을 교인들에 의해 회자되며 강력한 포교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삼육재단이 과연 춘천에 정말 외고의 설립을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가에 대한 의문감이 들게 하고있다. 이들은 만일 조금이라도 어떤 반대가 생긴다면 외고의 춘천 유치에 손을 떼고 이미 학교도 있고 교사도 확보되어 있는 원주 삼육고등학교를 외국어 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하므로 원주 유치의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지역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인가에 깊은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제 다시 이 외고의 유치문제로 인해 춘천시민들이 더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힘을 모을 때이다. 시민들에겐 소망이 필요하고 교회는 이 도시에 꿈을 심어줄 때라고 본다. 그런데 일을 도울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특정교단에 의해 가로막힌다면 이보다 더 큰 아픔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왜 꼭 이때에 이런 교단에 특혜를 주듯 춘천시가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묻고 싶다.

[본지 조영춘 사무총장]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상호 조영춘
최영조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김춘배
김미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 비 타 트

- 인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2006년 춘천 해비타트는 1동 4세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우리 지역은 소비도시라 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몇몇 기업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계셔서 이 아름다운 손길들을 알려 드리자 합니다.

춘천 해비타트에 빛이 되어주고 있는 기업들

♡ 건축설계 및 감리
1. 우성건축 (이준근) 2. 형제건축 (어민구)

♡ 건축현장 무대 설치 및 기초 공사 지원
1. 혁존건설 (소장 박민영) 2. 혁성건설(이동욱이사, 박정용)

♡ 2006년 필요한 콘크리트 재원을 무료로 수급
1. 동서레미콘 (대표 고석수)
2. 동서산업 동서석산 (대표 이현근)
3. 신안석산 (대표 이홍수)

♡ 전기통신
1. 사조기술단 (박인형) 2. 도영전기, 조명 (김도영)

♡ 설비 : 신흥설비 (김진주)

♡ 등기 공정한 법무사

도움을 주신 기업들로 인하여 춘천 해비타트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후원자에게도 이 글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석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없이 수고하는 손길 위에 축복과 은총이 더 하기를 원하십니다. 춘천 해비타트 실행이사진은 여러분의 도움을 감사하며 매일 같이 도움주신 기업과 개인후원자, 자원봉사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해비타트에 관심이 있거나 도움을 주시고 싶은 분들은 춘천 해비타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천 해비타트 이사장 김창수

♡후원계좌 농협(예금주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 춘천지회) 203 - 01 - 532101 계좌로 자유롭게 1구좌 3천 원 이상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2006년 영역별 대회, 성서한국을 말한다!

이번 시간에는 성서한국 사무처장으로 섬기시는 최은상 목사님과의 인터뷰입니다.



조: 목사님, 반갑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침체가 장기간 계속되는 시기에 성서한국대회가 열리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서한국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신앙적 배경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대학시절에 학생선교단체인 ESF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성서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이승장, 김회권 목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말씀중심, 인격적 신앙의 중요성과 더불어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서한국의 비전이 생겼습니다.

정: 사회적 영성을 강조하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개인영성을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고 교회의 부흥이나 갱신에 관심이 없으면 안됩니다. 저는 대학시절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강한 성령의 은사체험을 했습니다. 방언도 받고 능력도 받았어요. 한때 측농증이 너무 심해 공부를 중단하기도 했는데, 방언을 받고 2,3일 만에 완전히 치유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서한국운동은 반드시 각 개인의 보수적 신앙과 성경적 경건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성서한국대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국교회의 비전"

"성서한국대회는 참성자를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선교사로 양성, 파송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조: 성서한국대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태동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초기 2002년, 2003년에는 대학촌교회(담임:박영범 목사)주도로 성서한국수련회로 가졌습니다. 1차 수련회는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2차 수련회시에는 300여명이 참석했어요. 또한 2차례의 성서한국포럼을 가졌는데, 약 100여명의 관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제1회 성서한국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정: 대회와 수련회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대회와 수련회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회와 수련회를 차별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목표의 차이입니다. 먼저 수련회는 수련회에 참석한 개인의 영적 변화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대회는 참석자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와 교회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석자를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선교사로 양성, 파송 그리고 사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대회는 복음주의 사회운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중운동으로 조직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성서한국운동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특성이 있어요. 한번 대세가 결정되면 놀라운 헌신적 열정으로 급속한 운동의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세를 지속적으로 운동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한국대회가 18년 전에 시작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한국대회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한국교회가 선교한국대회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 결과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해외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강국이 되었습니다. 성서한국대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한국교회의 비전이 확실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조: 성시화운동과 성서한국운동은 영역별 사회선교를 추구한다는 본질적인 면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총체적 변혁선교를 21세기 선교의 주목표로 설정하는 많은 그룹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서한국과 연계하고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가 있으신지요?

지난해에 성서한국에서는 영국복음주의자들이 주최하는 "Spring harvest" 대회에 집회위원 2명을 파송했어요. 이 선교대회는 영국의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대회입니다. 성서한국대회는 총체적 변혁선교를 추구하는 국내적 네트워크는 물론 국제적인 네트워크들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입니다.

정: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함께 협력하여 격려하고 도전과 자극을 주게 될 때 예상치 못한 역동적 에너지가 발생할 것입니다.

춘천이 성시화 되는 것은 성서한국운동에 있어서도 매우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초창기에 성서한국운동을 지역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운동에 비전과 자극을 주는 영역별 대중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지역운동으로서의 성서한국운동인 성시화운동의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 선교한국대회는 2년에 한번 열립니다. 성서한국대회가 보조를 맞추어서 선교한국대회가 없는 해에 격년으로 개최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초기계획은 격년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회 대회가 좋은 반응을 얻게 되자 어르신들(손봉호, 이만열, 김동호 등)이 매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격년에 걸쳐 해"라고 강하게 도전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선교한국운동과 성서한국운동은 차별화되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해외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영역별 사회선교인 성서한국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구별됩니다.

조: 2006년 성서한국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성서한국운동에 우리 춘천성시화운동본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성서한국운동의 앞으로의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 성서한국대회는 15개 영역별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리더들이 와서 영역별 모임을 주관합니다. 누가 와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2007년은 평양대부흥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통일의 길목에서 2007년 성서한국대회는 통일한국대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만약 2007년 통일한국대회가 개최된다면 남북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춘천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양극화문제로 다양한 그룹들이 서로 나뉘어져 갈등하고 있어요. 춘천에서의 통일논의가 갈라진 우리 사회와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비전을 품고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성서한국대회에 춘천에서 많은 청·장년들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성서한국과 협력하고 있기에 춘천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특별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며, 이렇게 성서한국대회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깊은 김사를 드립니다.



성서한국운동(공동대표 손봉호 등)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답'이란 주제로 '2006 성서한국 영역별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법조 의료 등 총 15개 사회 영역에서 사회선교사를 발굴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15개 영역별 분과는 다음과 같다. 성경적 기독경영(기독경영), 하나님나라와 리더십(리더십), 직업과 일상생활의 신앙(직장), 과학공학 직업인의 기독교세계관(과학기술), 하나님나라를 이루기 위한 교육(대안학교홈스쿨), 법조인의 소명(법조), 기독정치운동의 현황과 과제(정치), 사회운동을 위한 활동영역 발견(크리스천시민운동),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통일), 토지와 경제 양극화(경제), 한국교회 개혁운동(교회개혁), 21세기 한국교회 현안과 과제(목회신학), 기독인의 시민사회복지운동과 과제(사회복지), 크리스천 문화읽기(문화예술), 하나님나라와 사회선교(사회선교)

※성서한국대회 등록문의: 춘천성시본부 등록비 일인가 8원만 ※영역별 분과중 정치·법조·리더십은 일정금액지원

취재 2006년 6월 13일 | 진행 조영춘 | 글정리 정재호 | 사진 김미경



무슬림세계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위대한 일...

무슬림권에서의 추수사역

많은 무슬림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대에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지난 1400년 동안 무슬림세계의 변화보다 지난 40년 동안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닫혀있었던 이슬람세계의 무슬림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무슬림종족내의 교회개척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하나님의 교회개척 운동, 데이비드 게리슨 저, 요단출판사 참조) 카바일 베르베르종족, 방글라데시의 무슬림,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종족운동이 무슬림권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게 되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이러한 무슬림권의 추수사역에는 다섯 가지의 원인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우리는 더 많은 사역자를 잃어지고 소외되었던 무슬림세계로 보냈다. OM, YWAM, Open Door등과 같은 신생단체들이 많은 젊은이들을 무슬림세계로 보내 그들과 친구가 되게 했고 관계 속에서 복음을 심게 되는 사역을 하였다. 평생 그리스도인 친구 없이 죽어갔던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러한 신뢰 있는 관계에서 복음을 듣게 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를 향한 편견이 무너지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단순한 원리가 무슬림세계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우리는 많은 사역단체들이 협력하게 됨으로써 이슬람세계의 사역적인 짐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파트너쉽인데, 가지고 있는 재원(resource)을 함께 투자하고 목표를 함께 설정해서 나아갔던 많은 시도들로 인해서 사역의 시너지효과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파트너쉽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단체간 사역의 파트너쉽을 강화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한국에서는 더 많은 파트너쉽을 통해서 서구권의 무슬림단체들과 사역적인 코드를 조율하는 그래서 세계선교의 등반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세 번째, 지난 30년간 무슬림 여러 지역에서 사역자들에 의해서 실험적이고 과감한 상황회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Phil Parshall의 "무슬림전도의 새로운 방향"에서 상황화의 건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슬람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도들은 C4나 C5냐 하는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아직 실험적인 단계에 있지만 이러한 과감한 상황화를 통해서 복음을 좀 더 무슬림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되기 시작한 것이다. 방글라데시에 상황화된 인질의 보급으로 많은 무슬림들이 거부감 없이 성경을 접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 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복음에 철저히 닫혀있었던 무슬림지역에서 우리는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복음을 접했다고 하는 사례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무슬림개종자가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들을 교회가 없는 무슬림개종자(Unchurched Muslim-background believers)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도 그러한 기적과 표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무슬림들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닫혀진 지역의 무슬림들을 그의 왕국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무슬림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해와 정치사회적인 혼란을 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회적 혼란이 복음에 더 수용적인 자세를 만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굳게 닫혀있는 것 같은 이슬람세계의 빗장을 그러한 자연의 재해로, 사회정치적 혼란으로 여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 체-러 2차 전쟁이후에 다게스탄에 피난 와 있는 체첸무슬림들이 "이사(Isa)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와서 참 친구가 되어주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봐도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고통 속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다가가게 하시는 것을 알수 있다. 하나님께서 무슬림세계에 전례에 없었던 큰 부흥을 경험케 하시는 데는 우리가 위에서 지적한 다섯 가지 이유 외에도 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더 많은 부흥을 이슬람권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선교가 무슬림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서구선교와 같은 코드로 사역에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실험정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거기에 무슬림세계를 향한 한국선교의 몫이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무슬림선교 패러다임의 변화

9/11사태 이후 서방세계나 무슬림세계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세계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또한 서로의 관계를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구도 속에서 기독교선교도 관심의 대상이 되기 충분했다. 무슬림세계, 세속세계, 그리고 기독교세계가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통신과 교통의 혁명으로 세계화되기 시작했다. 과거 우리의 사역자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나눈 내용들이 여과 없이 세속세계나 무슬림세계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본국에서는 선교사,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비즈니스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구분이 무너지고 있고,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무슬림들이 손끝의 클릭 한번으로 우리의 본래(?)의 신분을 알게 될 수도 있는 세계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세계에서 중단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세속세계, 무슬림세계, 그리고 기독교세계에서 각 다른 메시지가 아닌 공통된 메시지, 그리고 사역자의 공통된 정체성(identity)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슬림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더 장기적으로 더 사도적(apostolic)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이 무슬림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는 것이 무슬림선교계의 현주소인 것 같다. 우리 한국의 무슬림선교시도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민감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슬림세계에 하고 계신 일에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다가가야 할 것이다.

[프론티어즈 한국대표 이 현 수 선교사]

< 기 도 제 목 >

1. 무슬림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개척운동이 더 광범위 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2. 전제정변, 전쟁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슬람세계의 문을 열고 계시는데, 이러한 일련의 일을 통하여 무슬림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3. 무슬림세계에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잘 견디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4. 이슬람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아지도록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답 BIBLE KOREA
2006 성서한국 영역별대회
○일 시 : 7월 26일(수) ~ 29일(토)
○장 소 : 무주리조트
○회 비 : 춘천 특별 할인 8만원(원 등록비 12만원)
○문 의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56-1260
성서한국

확장이전 춘천교회백화점
2006년 여름성경학교 티셔츠 1+1 할인 이벤트
티셔츠 주문시 최고급 스포츠 모자 증정(자모자 추가)
위치 육림극장 맞은편
대표 권 성 주 장로(예담교회)
Tel 033)241-0691
H·P 016-300-8524


세건축인 봉수교회

평양 봉수교회당 재건축 현장을 가다

한국교회가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해 온 지 60년, 이제는 평양의 중심에 대형교회 신축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5월 7일 조선그리스도연맹 위원장 강영섭 목사, 오경우 서기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인 홍희천 장로, 남북한선교협력위원장인 김용덕 장로 간에 봉수교회당과 칠골교회당 재건축을 합의했다. 그 이후 9월에 평양 봉수교회당이 철거되고, 11월부터 시작된 신축공사는 매일 1백여 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칠골공사가 완료되고, 지난 5월 중순까지 옹벽공사가 끝나 교회당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제 동판 지붕공사를 마치면 8월에 상량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외부 석공사, 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만 남겨놓고 있다. 금년 성탄절에는 십자가의 불을 켜고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된다.

북한선교의 전략적 기지, 중국단동의 가나안복지센터 (5.29-5.31)

평양봉수교회당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우리 일행은(집사 1명, 장로 2명, 목회자 2명)은 인천공항에서 중국심양을 향해 떠났다. 저녁 7시에 신의주 접경지역인 단동에 도착. 밤 10시, 화려한 불빛에 빛나는 단동에서 바라보는 신의주는 칠흑 같은 어둠에 싸여 있었다. 분단 60년 만에 바라보는 북쪽의 모습. 우리 일행은 신의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저 땅을 밝혀 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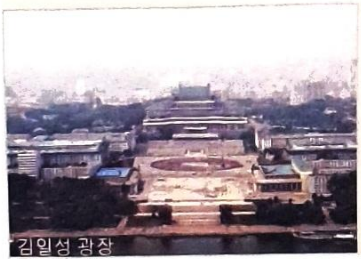
다음날 우리는 단동에 있는 가나안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중국에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전수하여 정신개척운동을 준비하는 가나안복지센터를 돌아보면서 한국 근대화를 가져온 가나안농군학교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단동지역에 있는 삼자교회(역사104년, 현재 증축 중)와 한경직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길도교회, 중국인 농아들을 섬기는 여러 곳의 처소교회를 방문하였다. 하나님께서 북한선교의 전략적 기지로 중국 단동지역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피부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봉수교회 재건축현장에서


춘천일행과 북한인내원

평양과 칠골교회, 묘향산 방문(5.31-6.2)

중국 심양공항에서 서울에서 온 일행(예장통합측 남선교회 임원)들과 만나 평양으로 향하는 고려항공에 탑승했다. 탑승하자마자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2시간 동안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려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었다. 통일의 길이 이와 같을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거친 뒤에야 21세기 통일한국시대가 열리리라! 보통강어관에서 하루를 쉰 후 평양에서의 첫날 아침을 맞았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보통강여관 바로 앞에 통일교에서 건축 중인 회관이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듯 어두움의 영들도 일하고 있음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칠골교회를 방문하였는데, 황민우 목사님(칠골교회 담임)은 현재 세례교인이 200여명이지만 예배출석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묘향산을 방문했다. 입벽에 새겨진 천하제일의의 명산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아직도 한반도에는 통일한국시대를 빛낼 무한한 자연자원이 남아 있음에 감사를 드렸다.


김일성 광장

봉수교회, 평양신학원 그리고 귀국(6.3)

봉수교회당은 조선 그리스도연맹 타운에 신축, 평양시 보통강구역 건국동 봉수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3판평에 조성된 조선그리스도연맹 타운은 등연맹본부를 비롯한 평양신학원과 봉수교회당 등 기타 부속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타운은 북한지역 기독교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심장부 역할을 감당해 왔었다. 봉수교회당 신축공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2년 전 등연합회 회장이었던 김용덕 장로가 평양을 오가며 교회당 신축을 합의하고, 남북한선교협력위원회를 두고, 직전 회장인 홍희천 장로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계속공사를 추진했다. 현재 봉수교회당은 1,2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축하고 있다. 건평 600평에 총 공사비 27억원이 소요되고, 동시통역과 영상시설 등 초현대식 시설을 갖추게 된다. 내년 부활절에 헌당예배를 드릴 이 예배당은 모래와 자갈, 잡석 등 기초자재를 제외한 모든 자재는 한국교회가 운송해 신축하고 있다. 금년 성탄절부터는 평양시내에서 십자가의 불빛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불빛은 평양시민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알리는 불빛이며, 북한 복음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이다. 봉수교회당 옆에 있는 평양신학원에서 성가대원들이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의 특별찬양은 큰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사람이나 이데올로기, 국가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 통일한국시대에 서울과 평양이 하나 되어 세계선교의 도구로 쓰여질 비전을 꿈꾸며 우리 일행은 가슴 벅찬 소망을 품고 귀국길에 올랐다.

만사운동과 2007년 부흥평양의 꿈!

북한은 현재 1만2천명의 신도들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540개의 처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에 따라 2천명 전도를 시작하고 있다고 강영섭 위원장이 설명했다. 이 '만사운동'은 현재 1만2천명 신도에서 1만4천명 신도로 확장시키는 운동이다. 조선그리스도연맹 산하에 30명의 목사와 57명의 전도사, 그리고 신학원에서 12명이 공부하고 있다. 신학원에는 해마다 신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해방 전 장대현교회당 자리에는 평양소년궁이 세워져 있다. 봉수교회 공사현장 방문단은 그 당시 장대현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평양대부흥운동이 또다시 봉수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날 것을 기도했다. 동연맹은 내년에 맞을 성령대부흥 100주년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봉수교회당 헌당과 함께 성령대부흥 100주년 행사는 북한선교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 주체사상이 통치하는 북한지역에서 십자가의 불이 빛나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역사이다. 한국교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평양부흥의 계기가 될 봉수교회 재건축에 온 힘을 기울여 협력해야 할 것이다.

[글 본지 정재호 사무차장]


칠골교회

※ 평양 봉수교회당 재건축에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실 성도와 교회는 연락 주세요.
(문의:춘천성시화운동본부 256-1260)

당신의 건강 엘파로스가 지켜드립니다!!!
1. 기능이 확실한 새로운 개념의 혁신 신발! 2. 발편한 원적외선 콜크 웰빙 구두!!
◆ 춘천에서 최초로 출시된 "ELPHAROS"입니다.
◆ 엘파로스(ELPHAROS)는 신고만 있어도 건강해지는 인체공학적 시스템 방식으로 설계 제조 되었습니다.
◆ 국내 권위 있는 발 건강관리 전문가와 정형외과 의사의 추천을 받은 아주 특별한 신발입니다.
◆ 기능성 건강구두지만 기존 건강신발과 달리 일반신발처럼 디자인이 우수하고 다양한 구색을 갖추었습니다.
※ 그밖의 문의사항 출장상담도 해드립니다.
춘천시 소양로2가 서부시장 상가1층 (http://www.sukryu.com)
이 승 철, 박순자 (춘천성광교회) ☎241-5143, 011-9792-0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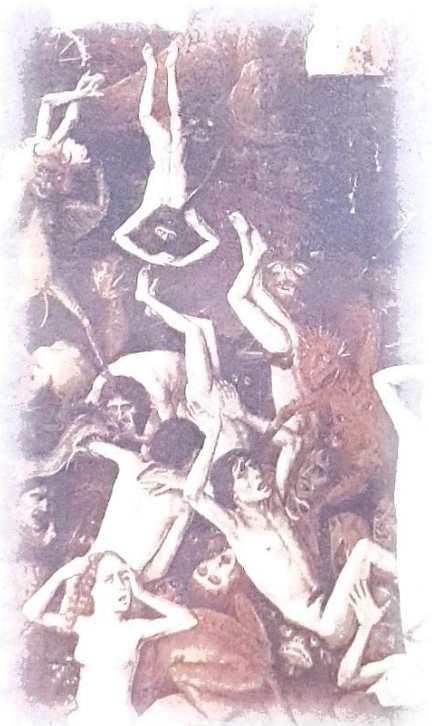
JESSI NEW YORK Lemonade 레모네이드
격세지한 아름다운 멋
제시뉴욕·레모네이드
제·선·리·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모델협
대표 전 순 천
☎ 252-7262
위치 조양동 조흥은행본점 앞

이단을 경계하자

김 지 한 목사(춘천북부교회)

이단 사이비 종교의 무차별적인 공세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잇따른 성추문으로 해외 도피한 JMS(애천교회) 창립자 정명석 씨가 얼마 전 중국에서 여성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4월 7일에는 우두동에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춘천제일교회(교주 박옥수) 신도들이 우두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포함된 교회부지 제척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마찰을 빚어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는 2009년 3월 개교 예정인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칭) 설립과 관련하여 안식교회가 내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며 외고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소문을 내고 있으며, 선거 기간 등안 춘천시장직을 대행했던 최 모씨는 "학교시설 부지를 확보해 놓는 등 외국어고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이미 갖춰 놓았다"면서 "현재 삼육재단과 함께 유치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입로 개설과 원어민 교사들의 숙소 문제 등 외국어고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교차로 저널 2006년 5월 8일). 명칭을 '흔듸교회'로 바꾸기로 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교주 문선명)은 천주평화통일가정당(가정당 · 총재 곽정환)을 창당하여 정치세력화의 야욕을 드러냈으며, 2010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강원도 용평리조트를 매입하기도 하였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인근 8백만여 평의 대지에 '통일교 왕국'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미 청심병원과 청심국제중고교가 문을 열었다. 한국기독교에덴성회(교주 이영수)가 경기도 가평에 자체 집회소를 세웠으며,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경춘국도변에 주유소와 수영장, 볼링장 등의 스포츠 시설과 유스호스텔, 농수산물과 식음료를 판매하는 쇼핑센터 등을 운영하며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 큰 규모의 수입원도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단단체들은 기성교회에 자신의 교인들을 위장 등록시켜 열심히 봉사하여 인정을 받게 한 후 심도들을 자신의 단체로 빼내가는 전략을 구사, 이단단체가 운영하는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을 권유하며 교인들을 빼내가기도..."



최근에는 이단단체들이 기성교회에 자신의 교인들을 위장 등록시켜 열심히 봉사하게 하여 인정을 받게 한 후 목회자들을 서기관 바리새인으로 비하하며 자신의 단체로 빼내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이단단체가 운영하는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을 권유하며 교인들을 빼내가기고 한다. 인천의 모교회는 자신의 교회 전도왕이 이단자인 것을 알고 내보내기도 했다. 그는 비기독교인들을 데려와 등록시킨 것이 아니라 이단에 소속한 자신의 단체 신도들을 등록시키면서 전도왕으로 인정을 받았다.

춘천도 예외 없이 종교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이단들이 세력을 넓히고 있어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음을 느낀 춘천기독교연합회는 이단세력으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고자 춘천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을 알리는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단은 급성 전염병 같아서 일단 발병하게 되면 치료가 대단히 어렵다. 필자가 많은 이단자들과 만나 대화를 해보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 이단에 빠진 자는 마음 문을 닫기 때문에 들어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예방이 이단대처에 최선의 방법이다. 치료는 어렵지만 예방은 쉽기 때문이다. 예방을 하면 적은 노력으로 죽음의 병을 피할 수도 있다. 모쪼록 이 글을 통해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깨어 주님의 교회와 가정을 보호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 이단이란 무엇인가?

한문으로 이단(異端)은 시작은 같은데 끝은 다른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교리적인 면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정의이다. 왜냐하면 이단은 끝이 다를 뿐 아니라 시작도 다른데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형적으로 볼 때 같아 보였을 뿐이다. 이단은 '나는 이단이다' 하고 간판을 내걸지 않고 '나는 양이다' 하고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은 노략하는 이리인 것이다.

이단에 대하여 벧후 2:1,2절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 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 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단'이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hairesis)인데 '분리', '당파', '선택된 의견', '종파', '이단'이란 뜻이다. 웹스터의 사전은 "이단이란? 비정통, 혹은 사이비로 간주된 신조를 붙잡고 있는 적은 무리의 종교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단이란 당파심, 교회의 통일을 파괴하는 것, 불신앙, 그리스도교를 사칭하는 자, 전통적 그리스도교의 교회와 다른 교설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틀린 교리가 아닌 적그리스도의 교리이다.' 이것을 위해 전통적인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간 자들이다.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사이비성을 정의함에 있어 정행업 목사(전 대전신대 총장)는 "종교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용어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용어에 대한 개념규정이 모호하거나 우왕좌왕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왜곡되거나 상반된 이해를 하게 된다"면서 "기독교의 기본교리 하나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교리에 영향을 끼쳐 기본교리를 훼손하게 된다면 '이단'이라 규정할 수 있고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단과 다름없이 그 폐해가 매우 큰 경우에 '사이비'라 하고 사이비 보다는 덜하지만 교류나 참여금지 등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사이비성'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용어를 소개했다.

[다음호에 계속...]

색동저고리 한복연구소
한복사랑20년 개업10주년 기념세일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모시옷 토탈세일 30%
(신부님께는 예쁜 아암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을 모시듯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243-9019, 011-1788-8406 김기순 집사(춘일교회) [약사동 마을금고옆]

춘천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예수향기를!!
교회현수막 전문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만 치도 됩니다.
천일기획(디자인)
T.255-5722 F.256-5722

탐방 I

주님 나라 향기로 퍼져가는 교회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주향교회(이병철 목사)편입니다





주향교회(이병철 목사)는 강북지역에서 빠른 시간에 정착, 성장한 아름다운 교회이다. 농촌선교를 중심축으로 통일선교, 제3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신세대적이고 균형감각 있는 교회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는 주향교회, 그 성장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주향교회와 이병철 목사

주향교회 개척자 이병철 목사. 이 목사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예수님을 알았다. 청소년시절까지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별로 없었던 그는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러서야 인생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된다. 이 목사의 부친은 당시 [천블새주지와도 깊은 교분을 가질 정도로 불교에 친근하였다고 한다. 이런 이 목사가 주님을 만난 직접적인 계기는 6촌 외조부의 소천이었다. 당시 훤칠한 외모에 한의사로서의 명망을 가진 외조부는 가문에서 존경받던 큰 어른이요, 이 목사의 정신적 지주였다. 이 목사의 청소년 시기에 6촌 외조부는 부와 명예 그리고 인품을 고루 갖춘 마음의 우상이었다. 그러나 외조부의 갑작스런 소천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목사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진시황제나 솔로몬도 하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짧음과 덧 없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 마음이 열릴 무렵 이 목사를 아끼던 몇몇 기독 친우(親友)들에 의해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되었다. 복음과는 무관하던 이 목사의 구원을 위해 몇몇 기독 여친(女親)들이 고등학교 시절 내내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비교적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의 일. 그러하기에 이 목사는 누구보다도 증보 기도의 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사랑과 성김의 공동체"



전도폭발 수료식

그 후 이 목사의 행보는 사도 바울의 극적 회심만큼이나 뜨겁고 빨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을 준비한 끝에 뜻을 정하여 신학대학교에 진학한다. 그 후 이 목사는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 출석하며, 대학부에서 훈련을 받고 대학생들을 지도, 등역하게 된다. 농촌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 무렵.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10여만 평의 농장을 관리, 운영하던 부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목사는 방학 때가 되면 의식 있는 기독청년들과 함께 '농활'(농촌돕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무너지는 농촌사회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이때 이미 한국의 소외된 농촌을 살리는 것이 통일 시대 이후에 북한 선교를 대비하는 것이요, 열악한 제3세계 선교를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일임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뜻이 인정받아 이 목사는 교단 최초로 '농촌선교사'로 파송 받아 강원도 화천 지역에서 농촌 목회자 연합모임, 화천 청소년 선교회, '북한강 유기농업 운동 연합' 등 농민 모임 조직에 관여하면서 4년여를 사역하게 된다.

아름다운 주향교회

주향교회가 개척된 것은 지난 2001년 7월. 농촌선교와 통일선교, 제3세계 선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두보격인 도시교회 설립을 위해 꿈꾸고 기도하던 중 주님의 은혜로 지금의 우두동에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표방하며 시작된 주향교회는 해가 거듭할수록 짧은 시간에 그 규모와 내용 면에서 의미 있게 성장하고 있다. 온 교우들이 거쳐야하는 새 가족반 6주 과정을 필두로 성장반(20주), 기득교 교리반(20주), 제자훈련(42주), 사역훈련(42주), 전도폭발훈련(13주)등 강도 높은 제자훈련이 주향교회 성장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이러한 깊은 훈련 덕에 주향교회는 짧은 시간 내에 2명의 단독선교사를 파송하는 물질적, 영적 헌신에 온 교우들이 기쁨 마음으로 동참할 수가 있었다.

주향교회는 최종적으로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교회를 교회의 모델로 삼고 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당대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사회적 신분의 장벽을 헐고 하나됨을 이뤄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최초로 지역 사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영성을 소유한 영향력 있는 교회. 뿐만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 최고의 지도자를 파송하는 교회로 1세기에 가장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교회. 주향교회는 이런 안디옥교회를 모델로 21세기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는 소명을 품고 있다. 주향교회가 교회와 지역사회의 장벽, 도시와 농촌의 장벽, 남과 북의 통일을 향한 장벽을 허무는 '뜨인 돌'(단2:34)이 되며, 시대의 향기가 되기 원한다는 이 목사. 이 목사는 앞으로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역 문화를 선두 할 수 있는 문화사역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구분은 되어야 하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인 요청을 염두에 둔 구상이리라.



현재 이 목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과 함께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의 강원지역 총무를 맡아 수고하고 있으며, 개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모임으로 얼마 전 출범한 [청년포럼]의 실무책임자(총무)로도 섬기고 있다. 주님나라를 위해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 드리기 원한다는 이병철 목사. 고정희 사모와 주향교회, 그 아름다운 꿈이 주향교회를 통해 진정 이루어져 주님나라 향기를 진하게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종합광고기획
DTP 디티피아
- 인 쇄 : 명함, 스티커, 전단, 포스터, 카다로그, 각종봉투, 서식, 달력
- 판 즉 : 캠사용 테이프, 우니폼, 현수기, 각종판촉물, 캠사기념품(타올/우산등)
- 현수막 : 각종현수막, 실사현수막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 십니다"
최 상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Tel :033.263.5152
Fax :033.242.5121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E-mail: chsch1784@yahoo.co.kr

성령으로 세워져 부흥하는 교회
춘일감리교회

담임 김 동 휘 목사
☎263-8591
춘천시 석사동931번지 주공10단지(뜨란체아파트)부출입구

소개합니다

혜민 사랑의 집





지역사회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

순복음춘천교회 부설 혜민 사랑의 집(대표 조님진장로)은 2003년 5월 5일 문을 열고 올해로 만 3주년을 맞이하였다. 교회가 효자동에서 만천리로 옮겨 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공헌을 해야겠다는 김주환목사님의 생각이 '혜민 사랑의 집'을 탄생케 했다. 김목사님은 당초 치매 노인들을 위한 조그마한 요양시설을 구상하였으나 의사, 간호사 등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하기로 하고 우선 외롭게 지내는 지역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라도 대접하기로 했다. 시설은 교회 교육관을 헌신적 가격으로 완공해 준 건설회사 삼양사 사장 염민웅씨가 취지 설명을 듣고 선뜻 건축해서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고 약속대로 1 · 2층 100평 건물을 신축 기증해 주었다. 염사장은 아직 교회의 등록교인은 아니지만 부인 민혜정권사는 거의 30년간을 한결같이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다. 교회에서는 이 건물의 이름을 기증자 부부 중 부인이름에서 "혜"자를 남편 이름에서 "민"자를 떼 내어 "혜민"이라 하고 이들 노인들을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뜻에서 사랑의 집이라 붙였다. 이렇게 해서 "혜민 사랑의 집"이 탄생했다. "혜민"의 뜻은 기증자 부부의 이름에서 따오기도 했으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드라마 허준에 나오는 "혜민소"의 의미도 담고 있다.

법적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운영

혜민 사랑의 집은 법적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운영된다. 하루 평균 1백 여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항상 오셔서 점심을 함께 드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2003년에 문을 열었을 때부터 한결같이 나오시는 어르신도 상당수 있다. 이들을 위해서 점심식사 외에 주 3회 공식적인 교양시간이 있다. 수요일에는 이무식장로(석사감리교회)부부의 찬양과 가요, 재미있는 이야기 시간이 10분내지 15분가량 식사 전에 있다. 목요일에는 본교회 갈릴리 성가대원인 권순홍집사의 색스폰 연주가 있고, 금요일에는 CBS춘천방송 선교국장 박영진장로의 5분간의 재미있는 교양특강이 있다. 점심식사는 요리솜씨가 있는 고정 취사 담당 집사님 2명이 있고 이들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 3~4명이 매일 구역별로 나와 도우미 역할을 한다. 매주 수요일은 도청 간부 부인들로 구성된 5명의 자원봉사단이 매주 나와서 2년 이상을 고정 봉사하고 있다.

3년간 9만명 어르신께 따뜻한 점심식사 대접

혜민 사랑의 집 창설을 기념하는 축하잔치가 매년 5월이면 크게 벌어져 약 5백 여명의 하객을 모신 가운데 기념예배 · 축하공연 · 음식 등 푸짐한 잔치가 베풀어지기도 한다. 지난 5월 5일을 기해 3년 통계를 찾아보았더니 그동안 사랑의 집을 찾은 어르신들이 연인원 9만명에 이르고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 들어간 돈이 1억 5천 4백만원 이나 되었다. 연 평균 5천만원의 자금이 소요된 것이다. 이 돈은 모두 성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내어 주어 충당되는데 하루 소요액을 대충 20만원으로 잡고 1구좌 20만원을 기준으로 기부성금을 받되 1,2만원씩을 매월 내는 분도 있고 연 1회 1구좌 또는 매월 1구좌씩을 내는 성도도 있다. 아직 한 번도 소요자금이 부족한 적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교회는 앞으로도 현재의 혜민 사랑의 집 점심공궤사업을 계속 감당해 나갈 것이다.

[글, 이순덕 전도사/후원문의 ☎253-2795-6]

영혼의 양식

바울의 이력서 - 딤후 4:7~8



정 명 훈 목사(에강교회)

사람은 누구나 지나온 발자취를 들아보며 평가하고 앞날을 설계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한 것을 이력서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주소, 이름, 생년월일, 학력, 경력, 그리고 상벌이 기재되는데, 어떤 이력서는 학력, 경력이 화려하고 상 받은 일이 기록된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개중에는 부끄러운 이력서도 있습니다.

본문은 세상적인 것의 나열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살아온 일생을 요약한 바울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생을 살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무슨 신앙의 이력을 남기고 갈 것인가? 바울의 신앙 이력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신앙 이력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 다소에서 출생하여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문하에서 수학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로 혈통과 학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인 핍박에 앞장서면서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그의 싸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선한 싸움, 영적이며 도덕적인 싸움의 생활로 바뀐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이단들과 대항하여 싸웠고, 현실주의자인 사두개인에게는 부활을 증거하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도리를 증거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가슴에는 세상이 달아주는 훈장은 하나도 없었지만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영적인 훈장은 가득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신앙 이력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곧 사명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대하심에 따라 즐달음질 친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행20:24) 바울의 사명의 길에는 무수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후11:23절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바울의 사명 따라 사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부귀와 영화, 장수와 명예를 자랑하지 않고 사명 따라 산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온갖 재능과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명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달리는 길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푯대인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신앙 이력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과 사명 완수도 귀한 것이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신앙 이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은 대단했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해 끝이 신통치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 데마(딤후4:10)). 그러나 끝까지 의연한 믿음을 지킨 스데반 집사나 풀무불의 위협을 극복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의 이력서를 제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춘천 3기 어머니학교

♥일시 : 8월 30일(수) ~ 9월 27일(수) 오전10시~오후3시
♥장소 : 석사감리교회
♥개설팀장 : 정태순 집사
♥문의 · 등록 : 민병임 018-325-1968
정태순 011-362-1338
김화숙 011-363-0926
♥등록금 : 10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1812-51-022689 예금주 정태순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대표 이 용 운 집사
(온누리장로교회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여름을 겨냥한 다양한 신앙 수련회

이미 여름방학에 들어간 대학생과 초·중·고등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다채로운 여름수련회 및 신앙캠프가 기획되어 잇따라 열리고 있다. 이번 여름신앙수련회를 통하여 청소년들과 청년 대학생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의 사명을 되찾는 귀중한 기회로 삼기를 바라면서 다양한 수련회 프로그램과 일정을 소개한다.



♠ 청년대학부

1) 2006 성서한국 영역별대회

성서한국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성서한국 영역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답'이란 주제로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청·장년 크리스천들이 사회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02-765-7112).

2) 2006 선교한국

2006 선교한국 제10회 청년학생 선교대회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천안 백석대학 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선교한국은 '잊혀진 부르심'이란 주제로 전방개척선교를 향한 도전과 헌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02-563-2468).

3) 제33차 SFC 대학생대회

제33차 전국 SFC 대학생 대회가 7월 3일부터 7일까지 호서대(아산)에서 '부흥! 회개자로 나아가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주강사로는 분당샘물교회 박은조 목사, 포도원교회 박득훈 목사,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허문영 박사, SFC 대표 조종만 목사가 나선다. 한편 SFC 중·고등학생 대회는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4차 기간에 걸쳐 한동대에서 열린다(SFC 02-596-8491).

4) 예수부흥운동 비전21

젊은이들의 예수부흥운동 비전21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4회에 걸쳐 충주 하일라돈산콘도와 양평유스호스텔에서 각각 '제45~48차 전국 청소년 청년연합수련회 비전학교'를 개최한다(02-2606-2218).

♠ 중고등부

1) 에스컴 썸머캠프

청소년선교단체 에스컴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8월 7일부터 9일까지 2차례에 걸쳐 회천 반석수양관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주제로 썸머캠프가 열린다(033-244-5400).

2) 예수전도단

예수전도단은 8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청소년여름캠프 'Face 2006'을 실시한다. 이번 캠프에는 데일 카프먼 국제YWAM King's Kids 책임자 김길(안디옥선교교회) 김등호(높은뜻승의교회)목사, 김용의(순회선교단)대표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02-871-5504).

3) HCCC 청소년여름수련회

한국대학생선교회 십대선교회(HCCC)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건국대학교(충북 청주캠퍼스)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를 주제로 전국청소년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등록비: 65,000원/교역자,교사,학생/02-395-3260).

4)청소년여름사명캠프(유스 미션)

청소년선교단체인 유스 미션은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호서대와 포항 한동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2박3일간 여름사명캠프를 연다. 'Where are you(네가 어디 있느냐)'가 주제인 이번 대회는 윈베네딕트 선교사가 주강사로 나선다(02-325-3148).

♠ 아동부

1) 예수사랑캠프(21세기교회학교연구소)

21세기교회학교연구소는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6회에 걸쳐 곤지암 실촌수양관에서 '회개와 전도'를 주제로 예수사랑캠프가 개최된다(031-742-5503).

2) 어린이독서캠프(다니엘 아가피아스쿨)

다니엘 아가피아스쿨은 8월 1일부터 3일까지 홍천 서석 갑릴리수련원에서 '책의 날개를 달자!'를 주제로 어린이 독서캠프가 열린다(선착순 20명 모집).

올 여름 청소년·대학생들에게 더 큰 영성과 믿음, 헌신,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편집부 최영조]

예 향

기도의 힘

과거 공산정권 통치가 무너진 이유를 영적인 것에서 찾기도 합니다.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의 퓨에라 목사를 중심으로 월요 기도회가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불과 50여명의 기도회였으나 공산정권이 무너지기 직전에는 10만 명의 대기도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회로 모일 때 공산정권들이 곤봉으로 무차별로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맞서는 사람 없이 그대로 맞고 감옥으로 끌려갔으면서도 계속 모였습니다. 그러더니 동서독은 기적과 같이 통일되었습니다. 루마니아에는 유명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가 있었고, 불가리아에는 아랄란포프 목사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으로 도취된 이런 사람들에 의해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야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시다.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서부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주천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임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안디옥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천일현수막
해비타트(춘천지회)	앤투어
쏘인테리어	디티피아
국민일보춘천지사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흥 수
이 국 정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관 호	이 학 규
이 병 연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외 여행 일선
(수학·졸업 여행)
● 배낭여행·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 현 집사(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포·토·에·세·이

6월과 십자가



6월에는 남에서 북에서
죽은 아버지를 생각하여라

무엇이 너를 다그쳐
종을 겨누게 하였는가를 생각하여라

6월에는 남부여대(男負女戴) 하고
남南으로 남南으로 흠어져 내려간 어버이를 생각하여라

가슴에 십자가 안고 오직 예수의 모습을 그리며
남으로 남으로 달리던 어버이를 생각하여라

지금 너의 가슴에 그 십자가 살아있는가
지금 너의 가슴에 그 기도소리 들리는가

6월에는 남南의 말 북北의 말
하늘에 띄워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말씀 생각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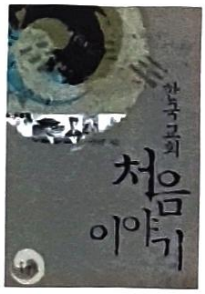
6월에만은 너의 오늘을
겨레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시 : 최 규 창(한국기독교신문협회장, 서울장신대 강사)

책 소 개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 이덕주 지음, 홍성사

고 재 만 목사(춘천평안교회)



1907년은 한국교회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해이고 내년이면 그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한 행사들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그것은 단지 기념될 만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때의 부흥을 다시 기대하는 마음이 이 시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열망이 있을 만큼 이 시대의 신앙은 새로운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처음 자리 잡을 때의 모습도 사도행전처럼 역동적이고 감동적이다. 그러나 그런 역사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단편적으로 알기 때문에 오늘의 신앙의 지표로 삼지 못했었다. 이제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땅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는 이런 우리의 관심에 부응하는 책이다. 이 책은 조선 말, 일제 침략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며 부흥을 이뤄낸 한국교회 1세대들의 열정과 교회 성장과정을 그리고 있다. 빛 문서를 볼태우고 마을 사람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준 부자, 노비를 양딸로 삼은 과부, 성경을 다 외워 버린 멩인,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했다가 훗날 목사가 된 사람, 세례를 받기 위해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천 리 길을 걸어온 사람들. 읽은 대로 배운 대로 성경을 실천하며 '처음 신앙'과 '처음 사랑'을 보여 준 선조들의 소중한 신앙 유산을 읽을 수 있다. 이는 100년 전 평양에 임했던 그 성령의 물결을 다시금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들로 새로운 영적각성을 하게 해 준다.

특별히 이 책은 성경말씀, 특히 신약의 사도시대 말씀의 빛에서 한국 초대교회사 사건을 해석해 보고 있다. 감리교 신학대학 한국 교회사 교수인 저자는 "성경말씀이 한반도에 응하여 한민족의 삶 속에 임하였더라"고 확신하며 이 책을 집필했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확신할 수 있으며 신앙의 1세대의 삶에서 큰 감동을 맛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책이다.

행사안내

춘천 YMCA

♣ 2006 여름학기 회원모집
1. 교육기간 : 7월 31일 ~ 8월 11일(2주간)
2. 접수기간 : 6월 20일 ~ 7월 21일까지 선착순 마감
3. 입금계좌 : 농협 173021-51-027537, 춘천YMCA
4. 수강료는 재료비 포함, 차량운행, 회원 10%할인
5. 문의: 춘천YMCA 평생교육원 ☎255-1006 [www.iloveymca.com]

월드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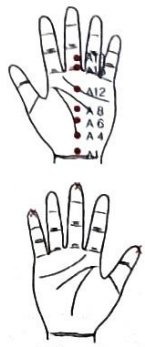
♣ 아동방학교실 개강식
1. 일시: 2006년 7월 18일(화) 오전11:00
2. 장소: 복지관 3층 강당
3. 내용: 방학교실 프로그램 및 지도교사 소개
4. 방학교실 일정: 7월 18일 ~ 8월 11일
5. 방학교실 시간: 10:30 ~ 14:30
6. 프로그램: 선행학습, 합창, 워십댄스, 전통놀이, 새소식반, 사회성교육, 미술, 성교육, 영어, 종이접기, NIE, 시청각교육, 연구수업, 야외학습
7. 교육비: 50,000원(식대비 20,000원 별도, 저소득 50% 감면)

♣ 합창단 캠프
1. 일시: 2006년 7월 27일 ~ 7월 28일
2. 장소: 복지관
3. 내용: 합창연습
4. 문의: (033)254-7244

건강상식

여름철배탈치료

여름철에는 배탈이 잦다. 음식이 부패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체질에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이 차가울 때 찬 음식을 먹으면 곽란(급성위장병)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급성 곽란이 일어났을 때는 손바닥쪽 중지 끝에서 피를 빼주고, 심할 경우에는 엄지와 새끼손가락 끝에서도 빼준다. 이후에 A1·3(4)·6·8·12·16·18에서 암봉을 붙인다. 지압을 하거나 은박지를 녹두알 만하게 만들어 테이프로 붙여도 된다.



피를 뺀다.

시랑의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 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254-7244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000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박세직 회장 초청

열린포럼

- 일 시 : 2006년 7월 6일(목), 오전 7:00-8:30
- 장 소 : 강원지방중소기업청(http://kw.smba.go.kr 약도참조)
- 주 제 :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소명과 전략
- 강 사 : 박세직 회장(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한일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장, 서울특별시장, 체육부 장관, 총무처 장관, 14대 국회의원, 15대 국회의원
- 주 관 : (가칭) 춘천포럼 준비위원회

도·시정을 위한 조찬 기도회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및 춘천시의원 취임축하예배

◉ 일시: 2006년 7월 7일(금) 오전 7시
◉ 장소: 춘천제일장로교회
◉ 문의: 256-1260

춘천기독교연합회

♡MPS 10기 수료식



춘천MPS는 10기 수료식을 6월 3일(토) 오후3시 베드로 선교센타 5층 추수홀에서 가졌다. 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하여 12주 과정으로 진행된 MPS 10기 약 300여명의 학생들이 수료하고, 보내는 선교사와 나가는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제1기 춘천성시아카데미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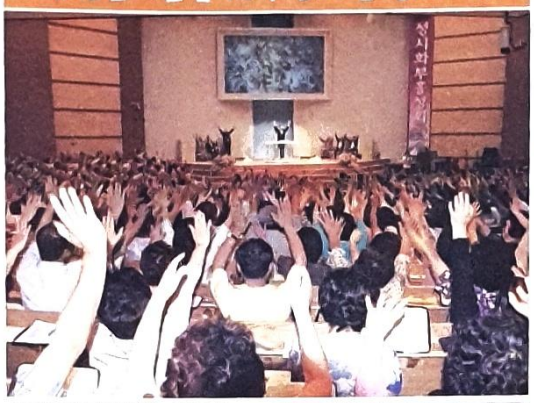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교육원(원장:피종호)이 주관한 제1기 성시 아카데미 42명의 수강생들이 13주 과정의 교육을 마치고 6월 27일(화) 오후7시 나눔교회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21세기 미래 성시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성시 아카데미는 지난 3월 21일부터 시작하여 국내·외의 역량 있는 지도자들의 다양한 주제 강의와 영역별 그룹토의로 진행되었다. 제2기가 9월에 개강할 예정이며 성시 아카데미를 통해 춘천 성시화를 위해 일할 성시일꾼들이 더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해본다.

♡춘천 통일포럼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성서한국은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춘천통일포럼'을 6월 20일(화) 오후7시 나눔성결교회에서 개최했다. 한민족복지재단 김형석 회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교회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주제강의를 하였고, 5개 분과별 강의가 진행되었다. 분과별 강의에는 남북나눔운동 윤환철 교육국장이 "나눔 운동을 통한 민족화해 운동의 현황과 전망", 남서울은혜교회 임용석 목사는 '통전적 선교 관점에서 본 북한 선교와 인권', 한동대 법대 원재천 교수는 '국가 비전으로 본 UN인권위, 미국 북한인권법안의 대응과 대북 인권정책추진 방안', 전주화복협 임완철 총무는 '청년학생운동을 통한 통일운동의 확산', 성토모 박창수 사무국장은 '토지정의와 통일 경제체제'에 대해 각각 강의한 후, 이어 전체패널위원들과의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 춘천올리클럽 10주년 기념 성시화축제





춘천올리클럽(회장:이학규) 창립 10주년을 기념 성시화 축제가 6월 9일(금) 안디옥교회에서 대성황리에 펼쳐졌다. 성시화 축제는 오후 2시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하여 성시포럼, 총회, 만찬과 친교, 기념대성회로 진행됐다. 이날 성시포럼에는 목회자, 기관장, 성도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강사 명성훈목사(수지성시교회)는 "성시화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업장 등에서의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일터교회를 강조하였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안동규교수(한림대), 박인관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총무), 이영길선교사(인도비하르)가 각각 성시화운동과 올리클럽의 역할, 성시화운동의 조직과 운영, 성시화운동과 세계선교에 대해 설명한 뒤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오후 7시 오정현목사(서울사랑의교회) 초청 기념성회에는 약 1500여명의 성도가 참석하여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오정현목사는 "성시화를 위해 달려온 지난날을 돌아보며 성시화운동을 통해 춘천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또 한국교회의 영적정체성에서 회복되어지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축제는 성시화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 교경협의회 연합부흥성회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회장:정상문)는 6월 11일(주일)부터 14일(수)까지 순복음춘천교회에서 2006 춘천복음화와 경찰가족을 위한 연합부흥성회를 열었다. 이번 부흥성회는 춘천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성도들과 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목목사(은혜와진리교회)가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대표:전영진)는 200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6월 19일(월), 20일(화), 22일(목) 오후6:30 석사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강습회에는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철원, 가평 지역 초교과 44개 교회에서 약 200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달리는 특급열차"를 주제로 3일 동안 진행됐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단 모임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박상호)는 6월 9일(금) 오전7시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증경회장 · 자문위원 · 실행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약50여명의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2007년도 성시화 국제대회 개최문제와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13회 어린이 찬양연합축제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박상호)와 윌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이명신)이 주최한 '제13회 어린이찬양연합축제'가 6월 24일(토) 오후5시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석사교회 소양성결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안디옥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의 어린이 성가대 및 찬양대가 참가하여 초교파적으로 연합하고 지역사회에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춘천성시본부 실행위원모임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6월 30일(금) 오전11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실행위원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성시화운동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이사회 설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가피아 agapia 김천지부

평범한 아이를 인재로 양성하는 아가피아 인재개발학교

공교육이 무너져 버리고 사교육도 돈만 많이 들지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입시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가정교육은 물론이고 교회 조차도 교육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교회가 교회학교(CHURCH SCHOOL-전인교육)의 기능을 회복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주도해야 합니다. 훌륭한 교사들만 준비되면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시스템과 훈련 과정을 소개합니다.

아가피아 학습법은 유대인 학습법 등 전 세계 유수의 교육 학습 시스템들의 장점을 살려 우리의 토양에 맞게 연구 개발된 세계에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21세기 꿈의 학습 시스템이며 14년간의 실험을 통해 그 놀라운 성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아가피아는 영성, 지성, 체성, 감성, 관계성, 지도성, 전문성 등의 구성 요소를 기초로 인격과 비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 개발과 지도자 양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춘천의 5곳을 비롯한 80여 곳의 독서스쿨과 꿈의 학교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춘천에서도 4기에 걸쳐 170여명의 지도 교사와 학부모를 훈련시켰으며 5기 과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춘천 제6기는 8월 24일 개강 예정입니다.

독서지도교사 양성과정을 마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 부모님들은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홈 스쿨링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또래 그룹을 모아 독서당을 운영할 수도 있고 독서 및 논술지도 학원 운영도 가능합니다.
- 교회내 방과 후 교실, 주말학교, 꿈의 학교 개설 운영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교회마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안학교(초, 중, 고등과정)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초, 중, 고등학교 방과 후 교실 강사로 활동하는 등 고학력 실업자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탁월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 특별히 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선교지에서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자녀교육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아가피아 - 드림교육 강원지부 | (효자동312-1, 베드로 선교센타 5층) ☎033-241-9939 | 지부장 김성호 목사 011-372-9100 사무국장 박치석 목사 010-2855-0829

사 설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다.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본대로 들은 대로 배운다."라는 말은 실제로 무서운 말이다. 자신은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힘겹하고 어려운 일이다. 옛이야기 중에 계 어미의 이야기가 있다. 계 어미가 세끼 계들을 보니 옆걸음을 걷는다. 깜짝 놀란 어미는 "애들아 왜 옆걸음을 치니 똑바로 걸어야지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도 옆걸음을 걷는 것이다.

7월엔 대다수의 교회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등등 각종 여름 행사들을 한다. 이 모든 행사들은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다. 바르게 보이면서 가르치는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웃지 못할 희극을 연출하지나 않을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바로 우리 시대가 자신은 그 삶 자체가 엉망이면서 공격에는 명수들이 많아서 남의 험을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흉을 잘 잡아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스승은 거부한다.

어느 서당의 훈장님이 허가 짧았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바람풍(風)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훈장님이 "바담풍"하셨다. 학동들도 "바담풍"했다. 훈장님이 큰 소리로 꾸짖는다. "아이놈들아 바람풍이 아니고 바담풍이야. 다시 해 본다. 바담풍" 학동들은 또 따라한다. "바담풍" 훈장님은 또 소리를 치신다. "야 이놈들아 바담풍이 아니고 바담풍이야. 다시 해 본다. 바람풍" 그러나 여전히 학동들도 "바담풍"이다. 혀 짧은 훈장님에게서 어떻게 "바람풍"을 배울 수 있을까?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고민 한다. 나는 혹시 혀 짧은 훈장은 아닌가? 염려스럽다. 나이가 많던 적던, 배운 것이 많던 적던, 우리는 항상 누구에겐가 스승일 수도 있고 학동일 수도 있다. 혀 짧은 소리를 해서도 안 되고 혀 짧은 소리를 배워서도 안 된다.

청와대도 국회의사당도 도청도 시청도 학교도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그러하다. 혀 짧은 소리를 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자. 오, 주님 우리의 혀를 단속해 주시옵소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혀 짧은 소리 하지 않도록!

❀ 알려드려요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예스컵 프레이즈(청소년연합찬양집회)'
일시: 7월 15일(토) 오후 6:30 장소: 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2) '캐빈모임(예스캠썸머캠프 리더)'
일시: 7월 22일(토) 오후 6:30 장소: 베드로선교센타5층 강의실

3) '제10회 예스컵 썸머캠프'
일시: 1차 7월 27일(목)~29일(토)
2차 8월 7일(월)~9일(수)
주제: 소아시아의 7교회 장소: 화천반석수양관
문의: 244-5400/010-9287-5170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춘천 성시화 종력 전도대회'
일시: 6월 30일(금)~7월 3일(월)
장소: CCC 아카데미하우스

2) '단기선교'
※일본- 일시: 7월 10(월) ~ 24(월)
※중국- 일시: 7월 24(월) ~ 8월 5일(토)
문의: 254-5776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7/4 영적전쟁2-정재용 7/11 복음-박세훈
7/18 성령세례-김준환 7/25 화요모임 없음

2) 브르스길라(중보기도) 모임
춘천과 예수전도단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춘천지부 사무실(한신아피트 맞은편)
대상: 가정주부(관심있는 자매님)

3) 예수전도단 선교대회 <Open 2006>
※선교대회: 7월 25일~7월 28일 장소: 이집트 카이로
※기도순례 tour: 유형별로 7월 중순~8월 초
※단기선교: 이집트 및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별도신청) 신청 및 문의: 02) 333-8122~3, 033) 252-1128/www.open2006.org

◆JDM

1) '유럽선교대회'
일시: 7월 4일(화)~21일(금) 장소: 유럽

2) '청소년 수련회'
일시: 7월 25일(화)~28일(금)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I)

3) '직장인 수양회'
일시: 7월 31일(월)~8월 4일(금)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I)
문의: 252-3192 / 011-9058-3192

◆어린이전도협회

1) '3일 클럽'
일시: 7월 31일(월) ~ 8월 4일(금) 4박5일 숙박
등록: 7월 1일까지 선착순30명 무료, 이후에는 15만원
장소: 미정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tch/]

◆IVF

1) '기초신앙훈련'
일시: 7월 3일(월)~8일(토) 대상: 대학1년
장소: 가평 승동기도원

2) '기초공동체훈련'
일시: 7월 3일(월)~8일(토) 대상: 대학2년 이상
장소: 춘천 근교 문의: 252-5200

◆ GBT

1) '전국 비전기도회'
일시: 7월 3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 삼광교회
밥씀: 이재훈 선교사(필리핀)

2) '단기선교 세미나'
일시: 7월 4일(화) 오후2시 장소: GBT본부
강의: Lyn Wood 선교사

3) '춘천 비전기도회'
일시: 7월 24일(월) 오후7시 장소: 예담교회
밥씀: 이영민 선교사(남미 에쿠아돌)

4) '2006 선교한국 '잊혀진 부르심'
일시: 7월 31일(월)~8월 5일(토) 장소: 한양대 안산캠퍼스
출발: 7월 31일(월) 오전9시 이마트앞
문의: 252-3927 김대원 간사 011-367-6085 [033@gbt.or.kr]

◆중고등부 부흥을 위한 교사 훈련 학교
일시: 7월 6일, 7일, 13일, 14일, 20일, 21일 오후7시~9시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문의: 256-3535
내용: 1회 "교사론" - 유동선 목사
2회 "청소년 위기 상담" - 최제락 교수
3회 "청소년 이상 심리" - 조용래 교수
4회 "청소년 발달 심리 및 신앙 발달" - 김종석 교수
5회 "청소년 분화" - 길신희 전도사
6회 "청소년 반목회" - 손종국 목사

◆여호수아워십댄싱선교회 '워십선교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체육관
문의: 263-6022, 017-374-2440

◆세계태권도선교회 '할렐루야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1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체육관
문의: 263-6022, 011-9791-6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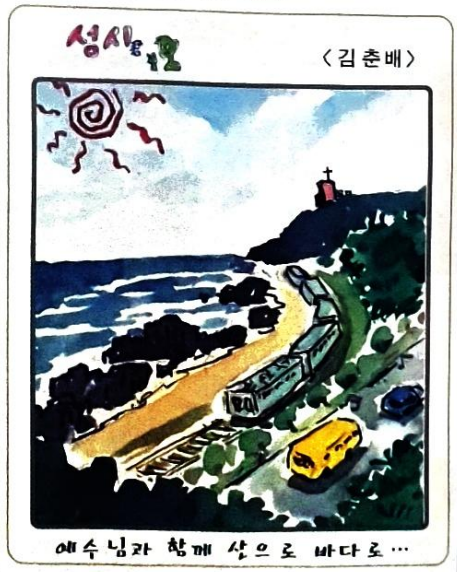
◆CBS 강원선교대회
일시: 7월 7일(금) 오전10:30, 7월 8일(토) 오후7:30
장소: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 문의: 242-7870
강사: 장경동 목사(대전중문침례교회/CBS TV 파워특강)
김기동 소장(고구마 전도왕/기독교사역 연구소)

◆ 춘천 열린 시민포럼
일시: 7월 6일(목) 장소: 강원도중소기업청
강사: 박세직 장로(국가조찬기도회 고문) 문의: 256-1260

◆춘천기독교연합회

1) '도 · 시정을 위한 조찬기도회'
일시: 2006년 7월 7일(금) 오전 7시 장소: 춘천제일장로교회
문의: 256-1260

◆춘천폴리클럽 월례기도회
일시: 7월 15일(토) 오전 6시 장소: 춘천제일장로교회
문의: 이학규 장로(017-370-4831)



교회학교 영어교사 훈련과정

-English Teaching Method for ESL Program in the Church School-

일 시 : 2006년 7월 31일(월) – 8월 4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1일 6시간씩 5일간 총 30시간)
장 소 : 베드로 선교센터 5층 추수홀 (봄내병원과 동일 건물)
강 사 : 미국인 Ms. Suzanne Carter(교재 개발 및 저자)
수강료 : 12만원(교재 및 CD포함)
후 원 : 수강료 외의 모든 비용은 베드로 선교센터(조은제 목사)와 국제 문맹퇴치 선교회(김남현 대표), 아가피아 강원지부(김성호 목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과정의 특징

※ 비영어권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교육(ESL)의 새로운 방법.
※ 교재 개발 및 저자의 직강.
※ 교과 내용과 복음(성경)의 접목으로 수업 중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영접케 함.
※ 교회학교 영어 프로그램에 쉽게 적용가능.
※ 수강 인원 20명 미만으로 제한.

연락 및 접수처 019-532-7720(국제 문맹퇴치 선교회) | 019-9903-1148(베드로 선교센터) | 011-372-9100(아가피아 강원지부)